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원천 봉쇄

군산시, 관광지·다중이용 시설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군산시는 지난 24일부터는 민원인들의 방문이 잦은 시청 청사 내 1층에서도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했다.

군산시는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신종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주요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작동하는데 이어 지난 24일부터는 민원인들의 방문이 잦은 시청 청사 내 1층에서도 열화상카메라를 비치해 운영 중이다.

군산시의 이번 조치는 지역 내 감염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확진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는 군산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KF94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구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대부분이 신천지 종교단체 모임에서 발생함에 따라 시는 군산지역 내 신천지 종교단체에서 활동하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산시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집중적으로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관리를 위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고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는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신종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시의 노력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미생물 BM활성수 활용 친환경농업 추진

3월부터 농가 공급 예정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2억원의 시비를 들여 BM활성수 생산시설을 마련했다.

군산시가 미생물 BM활성수를 이용한 친환경 농업을 적극 추진하며 농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2억원의 시비를 들여 BM활성수 생산시설을 마련하고 자체 생산한 친환경 미생물제인 BM(Bacteria Mineral)활성수를 오는 3월부터 농가에 새롭게 공급할 예정이다.

BM활성수는 미생물을 이용해 자연 암석으로부터 칼슘, 마그네슘 등 식물에 필요한 각종 미네랄을 추출한 친환경 미생물제다.

토양 미생물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어 토양 내 양분 보유 능력을 높이고 생육촉진 효과와 작물의 표피세포를 강화해 병해충 피해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어 토양 환경 개선과 고품질 다수확 농작물 생산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경우 악취제거와 해충발생을 억제하여 축사환경 개선

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올해 시범으로 BM활성수 50톤을 배양해 친환경 재배농가와 축산농가에 우선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수요에 따라 공급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BM활성수 공급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여 영농환

고 생각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이번 상황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한치의 방심도 없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운영 중이다.



익산시 김중만 건설국장이 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일반산단 진입도로 공사 마무리 탄력

익산시, 입주기업 물류·수송비용 절감, 교통편의 기대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업예산이 원활하게 확보되면서 사업 마무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국비 43억 등 26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차수계약 중 8차분 공사에 착공했으며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번 사업은 남산면 구평리 익산제3일반산업단지에서 연무IC에 이르는 연장 11.86km(폭 20m)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1869억원(공사 1449, 보상 330, 기타 90)이 투입됐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했으며 주요 구조물인 교량 19개소 등을 건립하고 있다.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변경된 총사업비와 추가사업비(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정현을 시장과 직원들은 국토부와 기재부를 수차례 방문하는 것은 물론 지역구 의원 및 소관위원회 의원들에게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으며

/익산=장양원 기자

그 결과 국비예산이 당초 35억원에서 43억원으로 증액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업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수송비용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권과 연결되는 진입도로 확보로 교통편의 증대 및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진입이 분산됨에 따라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중만 건설국장은 "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익산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대규모 도로개설사업으로 국비확보를 통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게 되었다"며 "지역 내 입주기업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향후 추가 국비확보도 적극 노력하여 사업이 빠르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군산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이웃 간 소통을 늘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함께 누리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교류를 확대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민들의 공동이용을 위한 시설보수 사업인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 보수 사업" 등 두 분야로 나누어 시행한다.

입주민 간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10개 단지에 단지당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다양한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보수비는 2

개 단지에 단지당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두 사업 모두 보조금의 30%이상의 자부담 비율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주민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다양하고 폭 넓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동주택 입주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를 원하는 단지는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을 참조해 오는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주택행 정과에 공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063-454-4762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고용위기지원센터, 기업성장 지원금 최대 2000만원 지원

군산시가 지역 내 입주해 있는 제조 기업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기업성장 지원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25일 군산고용위기중합지원센터(센터장 문섭)에 따르면 오는 3월 20일까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군산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고용역량, 매출, 기술력 등이 우수한 관내 제조 기업을 발굴해 기업별 최대 2천만원, 총 1억6천여만원 규모의 기업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업의 질적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군산시의 취업률 제고와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분위기를 확산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혜기업 선정방법은 사전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점검 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13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 제품개발, 사업화, 마케팅, 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기업 당 최대 2천만원의 기업성장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 조건은 사업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종사자 5인 이상, 2020년 올해 2~4명 이상 신규 채용 또는 예정인 기업이어야 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익산시는 신천지 대구 교회의 코로나19 대거 감염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감염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신천지 익산교회측의 협조로 관내 신천지 교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일대일 전화 상담으로 대구 등 최근 동선지역을 파악하고, 호흡기 관련 증상이 있는 지 여부와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비롯해 유증상 시 자가 격리와 선별진료소 방문안내 등 집단감염의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 주 신천지 익산교회는 자체적으로 건물 폐쇄 조치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시는 손소독제, 소독약품등을 지급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